

안데스 음악, 국악과 만남

시립국악관현악단 내일 문예회관



안데스 음악과 국악이 만난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예술감독 김광복)이 30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정기 공연 '에코도르와 놀다(鬨)'를 개최한다.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국악인 남상일씨의 사회로 열리는 이날 공연은 판국과 국악 관현악 '판놀음II'로 문을 열며 박이식씨가 상모를 돌린다. 이어 황승옥씨가 가야금 병창 '남그린 회포'를, 김광복 예술감독이 박범훈 곡 피리협주곡 '창부타령'을 협연한다. 남상일씨의 창작 판소리도 만날 수 있다. 김은경씨가 가사를 쓰고, 남상일씨가 작창한 '노정각 거시기'가 선보이며 남씨는 일명 '각설이타령'이라 불리는 '장타령'도 들려준다. 그밖에 풍골의 초원을 모티브로 한 관현악곡 '셀스타르'(풍골의 고향)도 만날 수 있다. 눈길을 끄는 무대는 국악관현악단과 에코도르 연주 단체 로스 안데스의 협연무대다. 신나고 역동적인 리듬의 '불의 춤', '차차차', '사리리' 등과 함께 사이먼과 가펩클의 팝송으로 유명한 '엘콘도르 파사'를 만날 수 있다. 티켓 가격 1만원(학생 할인 50%). 문의 062-512-5395. /김미은기자 mekim@

'각시탈' 유현미 작가 조선대 임용

드라마 '각시탈'(2012)의 작가 유현미 씨가 조선대 문예창작과 교수에 임용됐다. 유현미 교수는 이번 2학기부터 학부에서 '드라마시나리오실습', '방송문학실습', 대학원에서 '영상콘텐츠 연구'를 강의한다. 충남 강경 출신인 유 교수는 이화여대를 거쳐 고려대에서 문학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지난 9년부터 방송작가로 활동해오고 있다. 시대를 관통하는 선 굵은 이야기와 인간 존재에 대한 탐구, 탄탄한 주제 의식이 돋보인다는 평을 받는다. 데뷔 초기에는 KBS TV문학관 '향기로운 우물이야기', MBC 베스트극장 '혼자 우는 사랑', SBS 미니시리즈 '그린 로즈' 등 단막극을 주로 집필했으며 2008년 첫 장편 드라마 SBS '신의 저울'로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아리랑은 꼭 하나이다

아이든 어른이든, 여자들은 남자들, 그 누가 불려도, 그 누가 들어도 한민족에게는 슬픈 노래 아리랑이 세계인의 가슴을 적신다. 광주문화재단은 광주세계아리랑축전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 김포천)는 오는 10월 3일부터 4일까지 광주공원 앞 아시아문화커뮤니티공원(광주공원) 일원에서 '땅의 소리, 겨레의 노래'를 주제로 제3회 광주세계아리랑축전을 연다. 이번 광주세계아리랑축전은 오성원 연극연출자가 축전예술감독을 맡았고, 내·외국인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국제적인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특히 세월호의 아픔을 위로하고 광주 5월 정신을 아리랑의 대주제로 승화시키는 등 차별화된 내용으로 전통과 현대, 지역과 세계가 함께하는 '글로벌 공감의 장'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오는 3일에는 사전공연 및 개막공연이 펼쳐지고 4일은 '빛어라 아리랑' 경연대회와 축하공연이 진행된다. 앞서 1~2일 금남로 우체국 앞과 유스퀘어 등 도심 일대에서 식전행사로 일본, 중국, 라오스 등 아시아 아티스트들이 개릴라 공연을 펼치며 축전의 시작을 알린다. 이들 공연팀은 스트리트 서커스와 저글링 쇼 등 화려한 '오색 아리랑'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축전이 열리는 3~4일에는 광주교 원형무대에서 사전공연인 시민한마당 프린지가 열린다. 다양한 시민 동아리 15개 팀이 선보이는 공연·전시와 함께 전국 국악동아리 경연대회 등 시민·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무대를 만든다.

10월 3~4일 광주공원에서 '아리랑 축전'

세월호 아픔 위로하고 5월 정신 승화 中·日·라오스 스트리트 서커스쇼 개막공연 '유랑의 아리랑' 눈길

개막공연은 오는 3일 광주공원 주무대에서 열린다. 남사당 줄타기, 놀이패 신명의 마당극 '아리랑이 났네', 광주연극협회 회원들이 참여하는 시극 퍼포먼스, 임지형&광주현대무용단의 창작무용극 '유랑의 아리랑' 등이 주프로그래밍이다. 또 시민 200여 명과 소리꾼, 솔리스트, 첼비 오케스트라로 구성된 국악·양악 혼성 합창단이 '돌아오는 아리랑' 대합창을 부르고, 진도아리랑을 중심으로 관객과 함께하는 피날레 공연 '환희의 아리랑'으로 감동을 선사한다.

이어 4일에는 아리랑을 바탕으로 한 '빛어라 아리랑' 경연대회가 펼쳐진다. 창작 아리랑 경연대회는 공모를 통해 1차 기획안 심사와 2차 전문 심사단 쇼 케이스를 통과한 본선 진출 팀들이 무대에 오른다. 대상에 광주시장상과 상금 1000만원등을 수여하고 대상 수상작품은 내년도 축전 주제공연으로 초청된다. 경연대회가 끝난 뒤에는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대만 등 아시아연합아가펠라 공연팀의 축하공연이 열리고 대상 팀의 앙코르 공연으로 막을 내릴 예정이다. 문의 062-670-7974.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노래' 대신 '영화'

'김원중 달거리' 오늘 빛고을시민문화관

매달 한 차례(마지막주 월요일) 열리는 '김원중의 달거리' 9월 행사가 오는 29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이번에는 늘상 열리는 음악회 대신 영화를 함께 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상영작은 60만 재일동포의 소망이 함께한 열정과 투혼의 기록 '60만번의 트라이'다. 박사유·박돈사 감독이 만든 다큐멘터리 '60만번의 트라이'는 2010년 전국 고교럭비선수권 대회에 참가, 조선학교로서 첫 우승에 도전한 오사가 조선 고등학교 럭비부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제목의 '60만번'은 일본에 살고 있는 재일동포 60만명을 의미하며, 트라이(Try)는 럭비에서 공격하는 선수가 상대편의 인골(in goal) 안에 공을 찌는 동작을 일컫는다. 제15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CGV 무비플라주 상을 수상했다. 12세 이상 관람가. 무료 상영. /김미은기자 mekim@



'60만번의 트라이'

소리꾼 주소연 '심청가'

다음달 2일 목요일국악한마당

광주 서구(구청장 임우진)가 진행하는 목요일국악한마당 행사에 소리꾼 주소연씨가 초청됐다. 오는 10월 2일 오후7시 빛고을국악전수관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 주소연씨는 판소리 보성소리 강산제 '심청가'를 들려준다. 주소연씨는 단가 '시철가'로 공연을 시작, 강산제 '심청가'의 첫부분부터 '심봉사 눈뜨는 대목'까지를 선사한다. 보성소리 강산제 '심청가'는 동편제와 서편제의 특색이 잘 어우러진 소리로 음성과 음색이 다양하고, 애절한 가운데 끊고 맺음이 확실한 게 특징이다. 전남대 국악학과와 목포대 교육대학원에서 수학한 주소연씨는 1990년부터 1999년까지 광주시립국악단에 재직했으며 2004년 임병울국악대제전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현재 (사)한국판소리보존회 광주지부장으로 활동중이다. 주소연씨는 (사)청암고법 회장 박시양씨가 맡는다. 전석 무료. 문의 062-350-4557. /김미은기자 mekim@



이제 만나러 갑니다

남과 북의 화합을 모색하는 소통 버라이어티!

매주 일요일 밤 11시

	<p>[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p> <p>[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p>	<p>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p> <p>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p>	<p>목포 신안 무안 강진 원도 16</p> <p>해남 영암 진도 장흥</p>	<p>스카이라이프 13</p> <p>IPTV 18</p>	<p>꿈을 담은 캔버스 채널A</p> <p>www.ichannelA.com</p>
--	-------------------------------------------------------------------------------	--------------------------------------------------------------------	----------------------------------------------------	-----------------------------------------------	------------------------------------------------------